

프랑스의 제3의 장소 지원정책과 보드르빌의 온실(La Serres de Beaudreville) 사례

권인혜*

1. 프랑스의 제3의 장소와 지원정책

1.1. 프랑스 제3의 장소의 개념과 특징

프랑스에서 제3의 장소는 일상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단상이 되고 있다. 2021년 기준, 공공 및 민간 로컬 행동가들은 전국의 2,500개 제3의 장소에서 각종 이니셔티브와 실험적 활동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은 그들이 가진 기술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당면 과제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함께 만들어내고자 한다. 프랑스 제3의 장소 협회(Association France Tiers-Lieux)의 집계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15만 명이 제3의 장소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220만 명이 제3의 장소에서 일하거나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400만 명이 제3의 장소에서 열리는 문화 활동에 참여했다. 이처럼 프랑스 정부는 사람들이 모여 같이 일하고 만들고 어울려 살아가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제3의 장소가 프랑스 전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3의 장소(third places/tiers-lieux)는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사회학자인 Ray Oldenburg가 그의 저서 “The Great Good Place”(1989)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제1의 장소(first-place)인 집이나 제2의 장소(second-place)인 일터 외에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찾고 싶은 카페, 클럽, 도서관, 서점, 공원 등과 같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향하고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Oldenburg는 제3의 장소가 시민사회, 민주주의, 시민 참여, 장소감(sense of place) 형성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프랑스의 제3의 장소는 사람들이 일과 생활의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같이 하는 공간이다. 사회적 연결, 자유함/해방(émancipation), 그리고 공동의 이니셔티브가 펼쳐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kinhye@krei.re.kr)

는 새로운 장소이다. 지역 곳곳에 만들어져 해당 커뮤니티에 열린 공간으로 존재하는 제3의 장소는 생태적 전환, 에너지, 디지털화,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푸드, 로컬 제조, 공공재 생산, 문화적 실천의 향상, 사회적 연결과 시민 참여 등 현시대가 마주한 과제들에 대응하는 회복 탄력적(resilient) 활동과 장소를 사용자 커뮤니티에 공유를 제안한다.

그러나, 제3의 장소는 장소별 특수성, 기능, 경제 모델, 커뮤니티를 갖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모든 제3의 장소는 비공식 만남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참여자의 창의성과 공동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제3의 장소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창조하고, 교육하고, 배우고, 만들고, 참여하고,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등등의 일들을 ‘함께 한다’.

제3의 장소는 코워킹, 공유작업장, 메이커스페이스, 공공서비스의 집(maison de services au public), 문화 제작소인 ‘문화 미개간지(friches culturelles)’, ‘연대하는 카페(café solidaire)’, ‘페브랩(fablab)’, 지역 내 문화 플랫폼인 ‘작은 열정(microfolie)’, ‘연결된 캠퍼스(campus connecté)’ 등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각 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적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또한 제3의 장소는 지역 식품 등 지역 생산 중요성을 제고하고, 예술 활동, 각종 권리(사회적 편익, 사회통합 정책 등)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전환의 핵심 주체로서 해야 할 역할을 확장해가고 있다.

또한 제3의 장소는 지역 기반으로 발현되는 기업가정신, 실험과 창조(사회혁신), 협력과 자유로운 기여, 활동·소득의 하이브리드화(hybridization), 개방과 호의(convivialité)¹⁾ 이라는 공통점을 보인다(표 1). ANCT의 <새 장소, 새 연결> 프로그램 담당자인 마르크 라제(Marc Laget)는 제3의 장소마다 제각각의 운영규칙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제3의 장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메타 규칙은 해당 지역과 사람들의 관심과 필요에 맞추어 세팅(setting)을 적응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운영원리 아래 사용자들 간 합의를 통해 가치를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을 결정해나가는 것이다.

1)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 간 호의적이고 유쾌한 관계를 불러일으키는 특성을 의미함(<https://fr.wiktionary.org/wiki/>)(검색일: 2022.12.27.)

〈표 1〉 제3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

구 분	내 용
지역의 기업가정신	• 자신들의 지역을 위한 혁신적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로컬 행동가들(시민, 전문가, 기업, 공공단체(collectivités), 협회 등)의 커뮤니티가 존재함 • 시설/장비, 수단, 역량을 서로 통합(mutualisant)함으로써 그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함
실험과 창조(사회혁신)의 장소	• 자기주도적 실행에 기여된 공간으로, 제3의 장소는 진화하고 환경에 적응 가능함 • 기존 틀을 넘어서는 프로젝트가 쉽게 만들어지도록 함
협력과 자유로운 기여	•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기여를 독려함 • 제3의 장소 사용자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끔 되는데,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로젝트의 서비스와 활동을 발전시켜 감
활동의 하이브리드화	• 새로운 경제활동을 창출과 사회적 효용을 가진 활동을 결합시킴 • 다양한 소득*을 통한 재정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경제 모델을 개발함 * 서비스, 교육, 임대, 레스토랑업, 보조금, 원형 제작(prototypage) 등
개방과 호의	• 개방되어 있고 친근한 장소를 의지적으로 조성함 • 조건 없는 환대를 중시하며, 비공식적 모임을 촉진함 • 예정되지 않은 사회적 상호작용 또한 제3의 장소의 가치를 만들어냄

자료: FRANCE TIERS LIEUX(2021), p.6.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1.2. 제3의 장소 지원정책 및 조성 현황

프랑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 등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제3의 장소가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 정부는 제3의 장소 지원을 위한 〈새 장소, 새 연결(Nouveaux Lieux, Nouveaux Liens)〉이라는 범부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 정부가 부문별 관련 주체와 함께 수립하여 노동, 고등교육, 문화, 지역·도시개발, 경제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착수한 것으로, 코뮌(Communes), 코뮌간협력공법인(EPCI), 메트로폴(métropoles), 공공 또는 민간 프로젝트의 수행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²⁾ 각 정부 부처는 이를 통해 고등교육부가 추진하는 ‘연결된 캠퍼스’나 문화부가 추진하는 ‘작은 열정’ 등 이니셔티브가 실행되도

2)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코뮌에 모든 지방자치 권한을 부여하되, 이를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음.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이 정한 요건 하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조직으로서 공법인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등 자율적 의사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조직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 중 코뮌간협력공법인(EPCI)은 독립적 관할 권한을 의무적으로 갖고 고유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조세권을 가진. 코뮌간협력공법인 설치를 통해 경제 발전, 공간 정비, 주택 보급 등과 같이 소규모 코뮌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 가능하게 됨. 메트로폴(métropoles)은 대도시권 집중에 따른 공공서비스 공급과 사무 처리의 효율성, 유럽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에 신설된 유형으로, 인구 40만 명 이상의 도시권에 메트로폴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경제·혁신·에너지 전환, 주택·도시정책에 있어 전적인 권리를 가지고 도시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록 유도할 수 있다. <새 장소, 새 연결> 프로그램은 ANCT(Agence national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³⁾ 중심으로 '프랑스 제3의 장소 협회'⁴⁾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ANCT는 프랑스 도시와 농촌, 디지털 분야를 아우르는 지역발전·균형발전 정책 추진 기구로, 정부는 제3의 장소가 그 특유의 에너지와 창조성을 잃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관행을 따르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필요로 하는 수단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개입 방식을 통해 공적 및 사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2021년에는 제3의 장소에 1억 4,000만 유로 규모의 예산이 배분되었다. 3,000만 유로는 가까운 제작소(Manufactures de Proximité) 100개소 조성(이 중 20개소는 인증작업장 지위를 가지는 작업장), 5,000만 유로는 노동부, 역량고등위원회(Haut Commissariat aux Compétences)와 협력하여 추진한 교육과정 개발, 2,000만 유로는 시민 서비스에 종사하는 청년 3,000명에게 3년간 재정지원, 2,500만 유로는 제3의 장소의 디지털 포용(inclusion numérique) 지원(이 중 1,500만 유로는 제3의 장소에서 메이커(makers)의 새로운 디지털 포용 기구를 활용한 제작 지원), 1,200만 유로는 프로젝트 리더를 지원하고 해당 섹터와 지역네트워크 강화 등에 지원했다.

특히 개별 프로젝트 수행 주체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하고 제3의 장소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 제작소(Fabriques de territoires) 인증 사업이 2021년 기준 300개소(누적)에서 운영 중이다. 지역 제작소는 지역 및 레지옹 단위 제3의 장소 네트워크의 자원센터로서 프로젝트 수행 방향 제시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제작소에서는 '같이 하는 것(faire ensemble)'을 통해 배우는 새로운 견습 비전을 세우기 위해 지역 교육 전문과정, 대학·학교들과의 협업, 교육·문화 콘텐츠 제작 등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 사업체들의 디지털 전환 동행, 디지털 소외계층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중재 등 디지털 기술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이처럼 정부는 제3의 장소에 대한 정책 지원을 통해 ① 로컬과 레지옹 단위에서 제3의 장소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 협업을 장려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며, ③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문성을 가진 커뮤니티들이 필요한 도구(시설·장비)를 갖

3) Agence national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는 '지역들의 결속(연대)을 위한 국가 기구'의 뜻으로, 지역결속국가청, 국가균형발전청, 국토연대청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됨.

4) ANCT가 추진하는 제3의 장소 지원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제3의 장소'(France Tiers-Lieux) 협회 설립을 지원함.

추도록 지원하고, ④ 모든 로컬 지역에서 공공의 편익을 높이는 활동을 파급시켜 나가는 것을 강화하고자 한다.

〈표 2〉 제3의 장소 지원정책의 전개

구 분	지원 내용
2019년	• 6개 부처에서 〈새 장소, 새 연결〉 프로그램 추진 * 노동, 고등교육, 문화, 지역·도시개발, 경제 부처 • 선정된 제3의 장소에 총 4,500만€ 지원 (개소당 15만€ 씩 3년간 지원) • 첫 번째 80개 지역제작소(Fabriques de Territoire)에 대한 인증 - 이 중 32개는 디지털 제작소(Fabriques Numériques)
2020년	• 첫 번째 범부처 운영위원회 개최 - 제3의 장소를 지지하는 10개 부처장관 참석 • 146개 지역제작소 인증 • 지역제작소 대표들 간 첫 번째 연례회의 개최(170명 참석)
2021년	• 제3의 장소 지원정책에 1억 4,000만€ 배분 • 74개 지역제작소 신규 인증 - 총 300개(누적) 인증 제작소 • 지역제작소 대표들 간 연례회의 개최(200명 이상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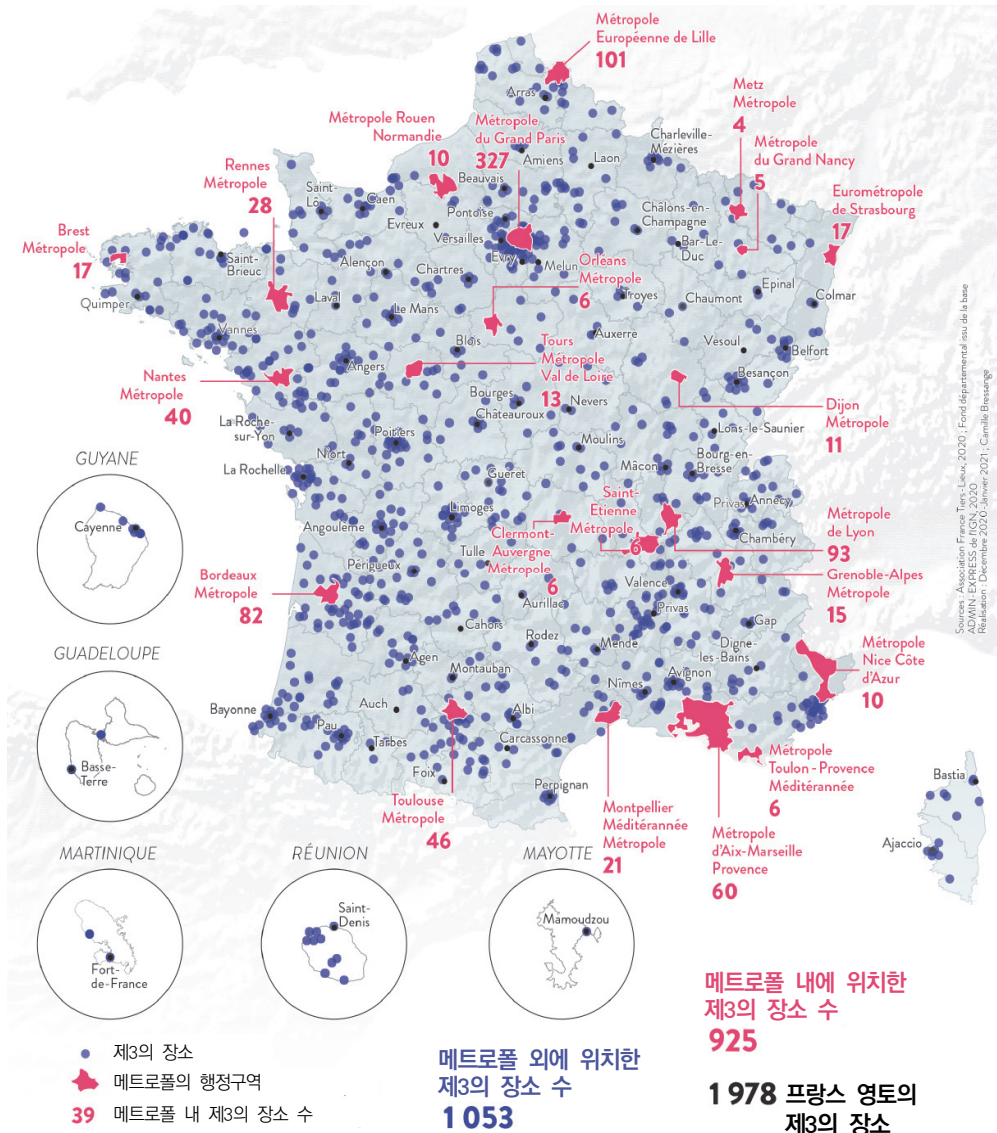
자료: ANCT의 제3의 장소 포털사이트(<https://tierslieux.anct.gouv.fr/programme>)(검색일: 2022.12.20.)

2019년 〈새 장소, 새 연결〉 프로그램이 착수된 이래, 제3의 장소는 프랑스 전역에 2020년 기준 1,978개에 이어 2021년에는 2,500개로 증가했다(그림 1). 제3의 장소는 프랑스 디지털 기술 확산에 힘입어 더욱 촉진되고 있는데, 2022년 말까지 3,000~3,500곳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수행되고 있는 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제3의 장소의 75%는 코워킹, 30%는 패브랩·디지털 제조 아틀리에(작업장), 27%는 문화적 제3의 장소, 19%는 수공업 공유 아틀리에(작업장), 17%는 사회혁신 실험장·리빙랩, 14%는 공유주방·푸드랩, 9%가 농지·공유정원과 관련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60%는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제3의 장소는 초기에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했지만, 점차 농촌지역, 중소 규모의 소도읍(타운)과 도시 외곽으로 빠르게 확대되어 2021년에는 제3의 장소의 55%가 대도시권인 메트로폴 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정책구역(QPV: Quartiers de la Politique de la Ville) 중 1/3은 구역 내 또는 구역에서 1km 내에 최소 1개 이상의 제3의 장소가 운영된다(531개 도시정책 우선 구역).

〈그림 1〉 프랑스의 제3의 장소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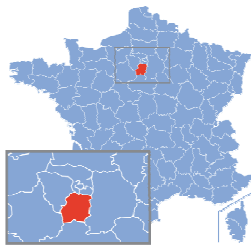


2. 제3의 장소 보드르빌의 온실(La Serres de Beaudreville) 사례

2.1. 사례 개요 및 특성

농촌지역의 제3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는 사례로는 파리 근교 에손 데파르트망의 고메츠-라-빌 코뮌에서 2020년 설립된 ‘보드르빌의 온실’(La Serres de Beaudreville)이 있다. 이곳은 에손 데파르트망에서 농업을 주제로 활동을 시작한 첫 번째 제3의 장소로, 농업과 식품,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고메츠-라-빌 코뮌은 파리에서 40여 km 떨어진 남서부 교외 지역으로 주민 1천 5백여 명이 거주하고(20년 기준) 지역 대부분이 농지인 작은 농촌 마을이다. 그랑파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도시와 농촌이 만나는 첫 마을인 데다 파리-사클레 대학⁵⁾이 인근에 있어 개발수요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림 2〉 제3의 장소 보드르빌의 온실



〈에손 데파르트망〉



〈고메츠-라-빌 코뮌〉



자료: (좌편 지도), 프랑스어 위키피디아 (fr.wikipedia.org/wiki)(검색일: 2022.12.27.)

(우편 사진) Parc naturel regional – Haute Vallée de Chevreuse (www.parc-naturel-chevreuse.fr)
(검색일:2022.12.27.)

5) 국립 대학인 파리-사클레 대학교(Université Paris-Saclay)는 일드프랑스에 있는 연구 중심 종합대학으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과 그랑제콜, 일부 국립대학을 통합하여 2014년 12월에 공식 설립, 2015년에 개교함. 파리 제11 대학과 베르사유대학, 에콜 폴리테크니크 등 11개 그랑제콜, 프랑스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 위원회(CEA),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등 7개 연구기관이 창립 멤버 기관으로 포함됨.(자료: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22.12.20.)

2년여 전만 하더라도 폐허로 방치되고 있던 6,000㎡ 규모의 온실을 양봉사업체 아피하피(Apihappy)⁶⁾의 설립자이자 제3의 장소 프로젝트 리더인 줄리앵 페랭(Julien Perrin)⁷⁾씨가 중심이 되어 이전에 없던 비즈니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생시켰다. 이 온실은 196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로, 전 소유주 사망 후 15년 정도 비어있다가 페랭씨가 부지를 구입하고 공간을 개조하기 시작했다.

보드르빌의 온실은 농업이나 가드닝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관련 활동을 시도해볼 수 있는 공유정원 공간, 스타트업 등 사업체들이 입주해 비즈니스를 하는 공간, 지역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작업 공간, 주민들의 요가, 아트테라피 수업 공간 등 다양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 각자가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공간 등 지역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해가는 공간이다.

페랭씨는 제3의 장소는 어떤 부지나 공유오피스가 아니라, 전문적이면서도 우정어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생태계(écosystème humain)를 의미한다고 말한다.⁸⁾ 아피하피는 온실 시설의 1/6만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자신만의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드르빌의 온실 살리기’(faire vivre les serres de Beaudreville)라는 협회를 만들고 KissKissBankBank 플랫폼에 참여 펀딩을 열었다. 협회라는 우산 아래 구성원들은 합의를 통해 도출한 ‘일, 다른 사람들과의 근접성, 혁신’이라는 세 가지 지향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가령, 특정 작물 농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곳에서 작은 규모로 시도해보거나, 구상하고 있는 사업 추진에 앞서 소규모로 실험해보면서 가능성을 판단해보기도 한다. 단순히 가정에서 소비할 용도나 취미로 공유농장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있다.

공간의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으로, 프로젝트 수행자들에게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협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도록 한다. 가치 거래를 위해서는 루이즈(la louise)라는 현지 화폐를 사용한다. 협회 운영에 노동과 시간으로 기여하면 현지 화폐로 보수를 주어

6) 아피하피는 지속가능한 방식의 양봉을 통해 로컬 꿀을 생산함.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267명의 지지자로부터 모은 2만 2천 유로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함. 2020년에는 프랑스 경제활성화(France Relance) 정책 예산을 지원받아 유럽의 양봉가들, 연구자들과 협업하여 꿀벌 번식 프로그램도 전개했음.

7) 페랭씨는 과거에 아그레제 교사(professeur agrégé, 프랑스의 중등교원)였다가 13년 전부터 양봉을 시작했음.

8) Les Echos 웹사이트(<https://www.lesechos.fr/pme-regions/ile-de-france/gometz-la-ville-ouverture-du-premier-tiers-lieu-agriculturel-en-essonne-1391104#:~:text=IDF-,Gometz%2Dla%2DVille%20%3A%20ouverture%20du%20premier%20tiers%2Dlieu,150.000%20euros%20de%20l'Etat.>)(검색일: 2022.12.28.)

실제 지불해야 하는 회비를 줄일 수 있다. 개인이 일한 부분이 현지 화폐를 통해 인정되기 때문에 협회 일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이는 동기로 작용하는 면도 있다.

제3의 장소는 사용자들이 이니셔티브로 만들어가는 공간이지만 공간을 채우는 콘텐츠의 실현은 공공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코뮌장(mairie)은 코뮌에 속한 제3의 장소를 다수의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역할을 가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는 지자체 행정(코뮌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걸러지고 조율되면서 진행된다. 행정과의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구체화해가는 과정은 제3의 장소가 더 전문화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고메츠-라-빌 코뮌장은 “동반해주고 함께 고민하되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코뮌의 의무”라고 행정의 역할을 강조한다.⁹⁾

보드르빌의 온실이 코뮌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이 모여 같이 일하는 곳이기에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한다. 중앙정부의 제3의 장소 지원금으로 15만 유로를 지원받아 시설에서 활동을 이끌어가는 정규직 직원 채용에 사용할 예정이다. 레지옹정부와 데파르트망정부, 그리고 고메츠-라-빌이 속한 리무르 페이 코뮌연합체(Communauté de Communes du Pays de Limours)도 지원한다. 14개 코뮌들의 연합체인 리무르 페이 코뮌연합체가 맡고 있는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연합 지역의 경제 발전이다. 제3의 장소 보드르빌의 온실을 미래 성장을 가져다줄 수 있는 곳으로 주목하고 가능한 부분을 지원하고자 한다.¹⁰⁾

2.2. 보드르빌 온실 내 활동

프로젝트 리더인 페랭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회사(société) 아피하피는 양봉을 통한 꿀 생산과 가공, 시설·장비, 교육 관련 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전 파스퇴르연구소 연구원 등 전문성을 가진 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별통에서 일하는 시즌에는 10여 명).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를 2019년 말 이곳으로 이전한 경우인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전문적 경제활동(생산·제조·판매 등) 구조가 갖춰져있어¹¹⁾ 양봉 산업에 관심 있는 초보자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9) 고메츠-라-빌 코뮌장 Edwige Huot-marchand씨와 면담한 내용.

10) 리무르 페이 코뮌연합체 회장 Dany BOYER씨와 면담한 내용.

11) 프랑스 국내에서는 파리 등 지역의 시장, 회사, 고급 과자 제과점 등으로 판매함. 일반 마트에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통하지 않아 중동,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지로 수출하고 있음.

보드르빌의 온실의 프로젝트 수행자들은 통상 어떤 사업이 성장하는 방식대로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추어 적응적으로 조정해나가는 애자일(agile) 방식으로 일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이곳에서는 사용자들이 희망하는 활동을 가능한 가장 작은 규모로 시작하도록 독려하는데, 가령 뿌리채소 농사를 시작하고 싶은 누군가는 이곳에서 1년 동안 1평 남짓한 규모로 농사를 짓고, 외래종 식물을 들여와 사업을 하려는 누군가는 작은 규모로 환경조건을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실험해보고 있다. 이처럼 어떤 프로젝트를 아주 작은 규모로 시도해보고 결과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각과 현실의 차이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초기적 형태의 혁신 프로젝트들이 쉽게 시작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문적 수준의 인큐베이팅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최소한의 제품으로 만들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적 인큐베이션(pre-incubation)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체 운영의 편의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갖추어나가고 있다. 입주 사업체들의 필요에 따라 앞으로 세미나실과 사무 공간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집단적 학습과 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기후 변화에 따라 회복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농업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혁신하면서 농업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보드르빌의 온실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제3의 장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러한 편의를 바탕으로 아피하피 외에 다른 사업체들도 입주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나가던 길에 우연히 온실을 발견해 입주까지 하게 된 ‘식물과 이야기’(plant and stories)라는 작은 신생 업체는 희귀식물(plantes d’exception)을 키워 프랑스에 보급하려는 사업체로 트럭으로 도시를 순회하며 희귀식물을 판매하고 공간 플랜테리어 등도 한다. 업체 대표는 이곳에 입주해 식물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서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¹²⁾ 실제로 온실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 화분 재배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 배웠고 그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도 했다.

보드르빌의 온실은 일하는 곳이자 사람들이 자유롭게 찾아와 문화·여가를 즐기거나 교류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지역의 예술작가들이 작업실에 입주해 작품활동을 하고(작업실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협회 회의에서 구성원 투표를 통해 제3의 장소 커뮤니티 성격에 맞는

12) 식물과 이야기 업체 대표 Laura Bruneau씨와 면담한 내용.

예술가를 선정),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온실 한편에 만들어진 체력단련 공간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요가를 한다. 삶에 활력을 주는 문화·예술 영역에 접근할 기회가 부족한 농촌에서 제3의 장소는 사람들이 모여 희망하는 문화 활동을 조직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공간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정보를 나누고 필요한 부분을 돕는 관계들도 형성된다.

고메츠-라-빌이 파리 근교 지역이다 보니 보드르빌의 온실에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도시민들도 찾아온다. 한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내기 위해 찾아와 에어비앤비 숙소에 묵어가는 도시민도 있고, 인접한 파리-사클레 대학에서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 드나드는 사람들도 있다. 한 예로, 파리-사클레에서 일하는 연구원은 이곳에서 개인 취미를 발전시켜 수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작은 사업 겸업을 시작했다. 보드르빌의 온실은 농촌과 도시가 만나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기도 하다.

2.3. 보드르빌의 온실의 경제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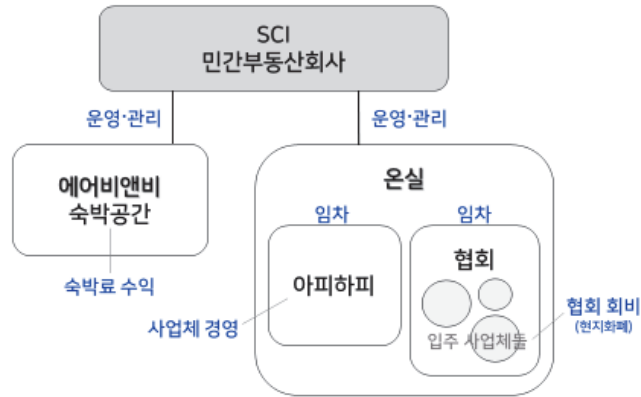
온실을 소유한 법적 조직은 부동산을 운영·관리하는 민간부동산회사(SCI: société civile immobilière)인 ‘보드르빌의 온실’이다. 이 민간부동산회사(SCI)가 온실 부지와 시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원은 임대 수익이다. 임대료를 받아 건물의 전기, 수도 등 관리·운영비를 조달한다.

온실 내에는 아피하피(사업체)와 협회가 임차하여 입주해있다. 협회 안에는 여러 사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협회는 가입 회원들로부터 회비(현지 화폐 루이즈 병용)를 받아 운영한다. 프랑스에서는 농업 분야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규정이 매우 복잡해지므로 임대가 아닌 협회 가입 방식을 사용한다.¹³⁾

숙박이 가능한 공간 두 곳에서는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창출한다. 아피하피와의 협업, 연구 등을 위해 오는 사람, 파리-사클레 연구단지 등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오는 사람 등 상당한 수요가 있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된다고 보고 숙박 공간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13) 프랑스에서는 임대한 토지에 임차인이 식물 등을 재배하면 임차인과 그 자녀까지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됨(페랭씨와 면담한 내용).

〈그림 3〉 보드르빌의 온실의 경제적 운영모델



3. 결론 및 시사점

프랑스에서 제3의 장소는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뉴노멀의 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3의 장소는 공동체성의 토대 위에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교류와 배움과 만남과 창의를 일어나는 장소라고 간추려 말할 수 있다. 4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00여 개의 제3의 장소가 전국에 생겨나는가 하면, 최근 1년간 프랑스 제3의 장소 협회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수백 명으로부터 문의를 받았다고 전한다.

일과 생활과 여가의 하이브리드, 다양한 활동 주제와 섹터 간의 하이브리드,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이니셔티브들의 하이브리드, 공공과 민간의 하이브리드, 공간을 찾는 다양한 사람들의 하이브리드 등 제3의 장소가 나타내는 이러한 다층적 혼종성으로 인해 기존의 틀을 가지고 이 현상을 명쾌하게 해석해내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모델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종전의 근대적 사회의 틀로부터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변화하는 수요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보드르빌의 온실 프로젝트 리더인 페랭씨의 인터뷰처럼 제3의 장소는 단순히 공유 오피스나 공유작업장과 같은 어떤 물리적 공간을 넘어 일과 생활과 유희를 함께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공간인데, 이 공동체에는 ‘따로 또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새로운 일의 방식과 새로운 관계 맺음의 방식에 관한 사람들의 수요가

반영되어 있다. 서로 지지하는 우호적 관계로 연결된, 유연하게 관계의 강도가 변화하는 느슨하고 개방된 사람생태계에 속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제3의 장소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접근이 아니라 유연함과 자유함, 집단적 학습과 실험적 시도 등 제3의 장소만이 가지는 특성들로 인해 지역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프로젝트가 쉽게 일어나고 발전되어 가도록 촉진하는 효용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제3의 장소 협회장 레비-와이즈씨(Patrick Levy-Waitz)는 제3의 장소들이 전개되어 감에 따라 ‘지원과 해결책을 기다리는 지역’이라는 기존의 수동적 관념을 뒤집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조성과 공공이익을 향한 행동을 만들어가는 곳’으로 지역에 대한 비전이 바뀌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과 정부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있다고 말한다. 제3의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자발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용자들의 역량 강화가 지역사회 역량 강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제3의 장소 지원정책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프랑스 사회를 대전환해야 한다는 큰 틀의 정책 방향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은 생태적 전환, 에너지, 디지털화,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푸드, 로컬 단위로의 제조 이동, 공공재 생산, 문화 실천의 향상, 사회적 연결, 시민 참여 등 현대 사회가 맞고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한 대응을 위해 각 정부 부처는 〈새 장소, 새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부처가 촉진하고자 하는 활동을 제3의 장소에 지원함으로써 정책 이니셔티브의 실행을 유도할 수 있다.

제3의 장소 접근은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변화할 필요성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고민과 그에 대한 정책 실험을 담고 있다. 기존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표준화된 관행을 부과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 필요한 수단을 지원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에 대한 낮은 수용성, 칸막이 구조(cloisonnement)와 불필요한 행정 요식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에서도 농촌 소멸, 지방 소멸로 표현될 만큼 지역 쇠퇴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제3의 장소 생태계와 지원정책이 앞으로 계속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와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Agence national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27 AOÛT 2021, L'État engagé auprès des tiers-lieux, Dossier de presse.

FRANCE TIERS LIEUX, 2021, *NOS TERRITOIRES EN ACTION: Dans les tiers-lieux se fabrique notre avenir!* RAPPORT 2021.

FRANCE TIERS LIEUX, 2021, *NOS TERRITOIRES EN ACTION: Dans les tiers-lieux se fabrique notre avenir!* SYNTHÈSE RAPPORT 2021.

참고사이트

ANCT의 제3의 장소 포털사이트 (tierslieux.anct.gouv.fr)

Les Echos (프랑스 경제 신문사 레제코) (www.lesechos.fr)

Parc naturel régional de la Haute Vallée de Chevreuse (오프 발레 드 셰브뢰즈 레지옹자 연공원) (www.parc-naturel-chevreuse.fr)

프랑스어 위키피디아 (fr.wikipedia.org/wiki)